

유학생 찾아 삼만리...주소지 들고 일일이 방문 '밀착 관리'

광주 동구 첫 운영 '외국인 유학생 전담관리반' 동행취재 해보니

3인 1조 '코로나19 예방 패키지' 전달하고 증상 꼼꼼히 물어
1시간 30분동안 16곳 돌며 고된 발품...“감염 확산 막아야죠”
친구 고국으로 돌아가고 홀로 남은 유학생 “믿을 건 마스크 뿐”

“코로나19 때문에 좁은 방안에 있으니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학교 개학도 연기돼 가족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원룸에서 만난 응구엔(26)씨는 방 안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이 가려진 응구엔씨 눈에 는 낯선 방문객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졌다.

응구엔씨는 조선대 유학생으로 지난달 20일 베트남을 떠나 광주로 왔다. 낯선 방에서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훨씬 더 커졌다. 같은 층 옆 방에 살며 서로 의지하던 단짝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선택하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응구엔씨는 “친구가 없는 한국에서 믿을 건 마스크뿐”이라며 “동구청에서 코로나 예방 패키지를 제공해주 그나마 마음의 위

안을 얻고 있다”고 말끝을 흐렸다.

비슷한 시각, 지산동에서 만난 유학생 팜(26)씨도 '품귀' 현상으로 구할 수조차 없는 마스크가 담겨있는 '코로나19 예방 패키지'를 받고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2년 전부터 광주에 살고 있는 팜씨는 “베트남은 확진자가 16명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 확진자는 5000명이 넘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한 듯 “코로나 예방 패키지를 1개 더 받을 수 있냐”라고 '전담관리반' 직원에게 되물었다.

광주시 동구가 지역 최초로 구성했던 '외국인 유학생 전담관리반'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관리반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국인을 제외한 조선대·조선이공대학 외국인 유학생 344명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담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게 전담반 업무다.

전담반은 지난달 24일 구성된 뒤, 광주 출입국사무소가 유학생들의 출입국 기록·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극적 행태를 보이면서 일주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광주일보 2020년 3월 2일 7면>

뒤늦게 활동에 나선 만큼 3인 1조로 나눠 유학생 속소를 찾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뒤늦게 유학생들의 출입국 기록·연락처를 제공한 탓인지 서두르는 분위기도 느껴졌다. 현장 방문에 앞서 방문할 곳을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등 동선을 최소화하고, 사전 질문지 등도 점검했다.

출입국사무소측은 수차례의 요청에도 주지 않던 외국인 유학생 정보를 지난 2일 예야 제공했다. 그나마 연락처가 등록되지 않은 유학생(204명)을 제외한 98명의 연락처만 받았다. 전담반은 자료를 토대로 잠복기(14일)를 감안, 국내 입국 기간이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향후 대처 계획을 마련했다.

전담반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일대 원룸과

주택 등 16곳을 돌며 6명의 유학생을 만났다. 전담반 직원은 “낮 시간이라 집을 비울 가능성이 큰데 이정도면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강원도 강릉 가톨릭관동대의 중국인 유학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학생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는 기색도 묻어났다.

직원들은 우선, 코로나19 예방 패키지(마스크 20매, 손소독제, 체온계, 다국어 안내문)를 전달하고 발열·기침·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유학생들은 “(증상) 없다”고 답했다.

전담반은 증상이 있을 경우 콜센터로 연락해달라는 말을 전하면서 동반 입국자가 있는지를 비롯해 국내 입국 전 다른 지역을 들렀는지 등을 꼼꼼히 물었다.

동구는 이번 주 내로 코로나19 예방 패키지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 예정이다. 미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다른 유학생 204명에 대해서는 구청 민원봉사과 등을 통해 주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곤희 동구 외국인 유학생 전담관리반 담당계장은 “지역 유학생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코로나19 예방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유학생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외국인유학생 전담관리반 직원이 3일 오후 지산동 원룸에서 베트남 출신 조선대 유학생 팜(26)씨에게 마스크 등이 담긴 코로나19 예방 패키지를 전달하고 예방 수칙·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취약계층에 돈 줄테니 알아서 마스크 사라고?

광주 지자체들 생색내기 지적

지원 예산도 1장 당 1000원

시중 판매가격 3분의 1 수준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결국 취약계층이 마스크를 직접 사서 쓸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급키로 했다. '마스크 대란'에 자신들조차 구할 수 없는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줄 서서 사라'고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마스크 1장당 지원 예산을 1000원으로 책정한데다, 지원 대상자도 전체 시설 종사자의 10%로 제한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는 아동·노인·장애인·빈곤 등 556개 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입 비용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한 재난관리기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와 광산구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경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고도 입찰·수의계약 과정을 통한 마스크 구입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지 못했다. <광주일보 2020년 3월 3일 6면>

서구를 포함한 광주 5개 구도 이 같은 점을 고려, 정부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모두 4억 7800만원을 확보해 광주지역 8971곳의 복지시설에 구입비를 지급키로 했다.

보건 당국이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에게 감염예방품인 마스크조차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마련한 대책이지만 '줄속'이라는 말이 터져나온다.

우선,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마스크의 경우 시중 판매가(2500~3900원)의 3분의 1 수준인 1장당 1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한데다, 지급 대상자도 전체 시설 종사자의 10%에 불과하다.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공적 판매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신들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마스크를 '돈을 줄테니 사서 써라'는 식으로 취약계층에게 떠넘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취약계층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입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경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건넨 마스크 5900장을 관내 취약계층에 나눠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식 옛 전남도청서 첫 개최

행사위 최종 방침 결정

국가보훈처에 전달키로

지금까지 국립묘지에서 열렸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40주년을 맞아 최초로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제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에 따르면 전국 10명의 상임행사위원장은 이날 5·18행사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치르는 데 합의했다.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의 경우 지난 1980년 5월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현장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5·18행사위는 이들 전국 상임행사위원장들의 입장과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침을 결정, 국가보훈처에 전달키로 했다.

5월 단체 안팎에서는 애초 국가보훈처

가 40주년 기념식의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5·18 행사위의 최종 결정이 반영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그 뜻을 존중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상임행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제 40주년 5·18기념행사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전국화·세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칠석동 일대 상습 침수 걱정 끝

배수문 정비·배수로 확장

10억 투입 연말까지 완료

매년 물 난리를 겪었던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공원 인근 하우스능가 주민들이 앞으로는 침수 걱정을 덜게 됐다.

광주시 남구는 3일 10억원을 들여 칠석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석동 일대는 대추천으로 방류하는 농배수로 용량이 부족한데다, 자연 배수도 불가능해 매년 집중호우 때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남구는 10억원을 투입, 다음달부터 대

추천 준설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배수문을 정비하고 배수로 확장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칠석동 일대에서는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뿐만 아니라 영농 불편사항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택시로 착각해 남의 차 탄 취객, 빨리 출발 안한다며 주먹질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남성의 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올라타 “출발하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40대 취객이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차를 세워두고 대리운전기

사를 기다리던 B(45)씨의 BMW 차량에 올라탔는데, B씨가 “택시가 아니다. 내려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 얼굴을 때리고 옷을 찢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귀일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